

주말마다 신나는 우리민속공연

KOREAN FOLK PERFORMANCE FOR VISITORS



찾아오시는 길

지하철 1호선: 시청역 4번 출구에서 마을버스 11번 이용
 3호선: 경복궁역 5번 출구, 안국역 1번 출구에서 도보로 15분
 5호선: 광화문역 2번 출구에서 마을버스 11번 이용

버 스 광화문 세종로 일대 버스정류장(도보로 15분)

주 차 경복궁 주차장 이용

주 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로 37 국립민속박물관(110-820)

The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Samcheongro 37, Jongno-gu, Seoul 110-820, Korea

전 화 02-3704-3114 **홈페이지** www.nfm.go.kr



이용안내

개관 및 관람 시간

03~05월	09:00~18:00	17:00까지 입장
06~08월	09:00~18:30	17:30까지 입장
09~10월	09:00~18:00	17:00까지 입장
11~02월	09:00~17:00	16:00까지 입장
05~08월 주말·공휴일	09:00~19:00	18:00까지 입장
야간개장 매달 마지막 수요일	09:00~21:00	20:00까지 입장

휴관일 매주 화요일 **입장료** 무료

※공연접수 공고는 4~5월과 9~10월에 박물관 홈페이지를 통해 하고 있습니다.

우리민속 한마당

함께 누리는 문화 행복한 대한민국

Korean Folk Performance
for Visitors



04

APRIL 2015

토요상설공연 Saturday Performances in April

2015년 4월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국립민속박물관 대강당

일요일민속무대 Sunday Performances in April

2015년 4월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국립민속박물관 앞마당

국립민속박물관
The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우리민속 한마당

함께 누리는 문화 행복한 대한민국
Korean Folk Performance
for Visitors



4월 토요일상설공연

Saturday Performances in April, Every Saturday 3:00pm, Museum Auditorium

2015년 4월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국립민속박물관 대강당



제890회

서울시무형문화재 제24호 박찬범의 초적(草笛)

Reed Pipe Performance by Park Chan-beom, Seoul Intangible Cultural Property No. 24

04. 04.



제891회

북녘소리와 배뱅이굿

Sori of North Korea and Baebaengigut

04. 11.



제892회

박덕상 타무천 예술단 '춤 한자락 장단 한가락'

'One Dance One Rhythm' by Park Deok-sang Tamucheon Art Company

04. 18.



제893회

명창 김점순의 경기민요 "화란춘성"

Gyeonggi folk song "Hwaranchunseong" sung by Master Singer Kim Jeom-sun

04. 25.

4월 일요일 열린민속무대

Sunday Performances in April, Every Sunday 2:00pm, Museum Courtyard

2015년 4월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국립민속박물관 앞마당



제364회

느낌 좋~은 타악콘서트 'Feel 굿'

'Feel Good' - a percussion concert

04. 05.



제365회

고성오광대 전과장

Entire Gwajang of Goseong Ogwangdae (mask dance)

04. 12.



제366회

신명의 땅 광개토(廣開土)

Gwanggaeto, The Land of Mirth

04. 19.



제367회

함께하는 일과 놀이 - 화성두레농악

Hwaseong Dure Nongak - work combined with play

04. 26.

우리민속 04 APRIL 2015
한마당



서울시무형문화재 제24호 박찬범의 초적(草笛)

Reed Pipe Performance by Park Chan-beom, Seoul Intangible Cultural Property No. 24

2015. 04. 04. Saturday(토) 3:00pm

국립민속박물관 강당 Museum Auditorium



공연내용 Performance Description

이번 공연은 서울시무형문화재 제24호 박찬범 보유자의 초적(풀피리) 연주와 직접 작사, 작곡한 국악가요들로 구성된 공연이다.

초적(草笛, 풀피리)은 두껍고 질긴 나뭇잎을 입술에 대고 입김을 불어 연주하는 것으로, 조선 궁중 음악서인 『악학궤범』 과 궁중진연의식 보고서인 『진연의궤』 에 기록되어있다.

본 무대에서 공연되는 토막극은 『승정원일기』 에 기록되어 있는 한 장면을 토막극으로 꾸민 것이다. 옛 풀피리 명인 김영백이 선조 임금 앞에서 풀피리를 연주하는 장면으로 역사 속에 묻혀있는 풀피리의 존재를 널리 알리는 공연이 될 것이다.

This show comprises reed pipe performances and Korean classical songs written and composed by Park Chan-beom, Seoul Intangible Cultural Property No. 24.

The reed pipe is played by pressing one's lips to a thick and tough tree leaf and blowing one's breath, whose historical record can be found in the 'Akhakgwebeom' - the royal musical literature from the Joseon Dynasty and 'Jinyeonuigwe' - the report of royal banquets from the Joseon Dynasty.

A short play to be presented during this show comes from one part of the 'Diaries of the Royal Secretariat', where Master Performer Kim Yeong-baek plays the reed pipe before the King Seonjo. The show will for sure reveal the existence of the reed pipe vanished in history.

공연순서 PROGRAM

- 01 세상만사 Sesangmansa
- 02 시나위 Sinawi - Korean traditional instrumental piece
- 03 영암땅 월출봉, 우리엄마, 달빛어린한강 Wolchul Peak in Yeongam, My Mother, Hangang in the Moonlight
- 04 풀피리소개 Introduction to Reed Pipe
- 05 풀피리 고증 토막극 - 나그네풀피리, 시나위 Short play on 'Reed Pipe' - Wanderer's reed pipe and Sinawi
- 06 정들다보면, 어부들의 봄노래, 어린 시절 Getting closer, Fisherman's spring song, Childhood
- 07 풀피리연주 - 아리랑 Arirang - played with the reed pipe
- 08 여행은즐거워 Travel is fun!
- 09 풀피리연주 - 군밤타령 Gunbam taryeong - played with the reed pipe



대표 박찬범(서울시무형문화재 제24호 초적 보유자)

사회 정성자

출연 한현동, 김용남, 허숙자, 한승희, 이하영, 남승리, 장충열,
임관하, 김혜진, 최우창, 연홍관, 박소율, 홍민웅, 박영진

북녘소리와 배뱅이굿

Sori of North Korea and Baebaenyigut

2015. 04. 11. Saturday(토) 3:00pm

국립민속박물관 강당 Museum Auditorium



공연내용 Performance Description

이번 공연은 중요무형문화재 제29호 서도소리와 한 사람의 소리꾼이 소리와 말과 몸짓으로 엮어 내는 배뱅이굿을 선보인다. 북한지방의 소리는 관서지방(황해도, 평안도)과 관북지방(함경북도)으로 대별되는데, 이 가운데 평안도의 수심가토리(역음수심가, 자진아리, 안주애원성 등)와 산염불토리(긴난봉가, 자진난봉가, 산염불 등)가 대표적이다. 한 사람의 소리꾼이 등장하여 여러 사람의 역할을 도맡아 꾸며가는 것이 특색으로 소리(노래)와 재담으로 연출하며, 굿의 미신적 요소를 풍자적으로 꾸며 표현한 서도소리 배뱅이굿을 만나 볼 수 있다.

배뱅이 굿은 관서지방의 대표적인 굿놀이로 굿은 죽은 처녀 배뱅이의 넋을 위로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배뱅이는 문벌 높은 집안의 귀한 무남독녀로 태어나 18세에 상좌종과 사랑에 빠졌다가 헤어져 상사병으로 죽게 된다. 배뱅이 부모가 딸의 혼령을 위로하는 넋풀이를 하는데 영터리 박수무당이 교묘한 수단을 써서 거짓 넋풀이를 해주고 많은 재물을 얻어 가진다는 내용이다.

The show presents 'Seodo Sori' - Important Intangible Cultural Property No. 29 and 'Baebaenyigut' performed by one singer. Sori of North Korea is represented by that of Gwanseo (Hwanghaedo and Pyeongando) and Gwanbuk (Hamgyeongbukdo) and the most famous among them are 'Susingatori' (Yeoggeumsusimga, Jajinari, Anjuawonseong, etc.) and 'Sanyeombultori' (Ginnanbongga, Jajinnanbongga, Sanyeombul, etc.) of Pyeongando. Only one singer appears throughout the 'Seodo Sori Baebaenyigut' performance, singing and telling stories as well as expressing its superstitious features in a satirical manner.

Baebaenyigut, a typical gut of Gwanseo region, narrates a story of a dead young lady called Baebaengyi and is mainly about appeasing her spirit. Baebaengyi was born into a noble family as an only daughter and died from love sickness after breaking up with the monk she had fallen in love with at the age of 18. The gut is about a male shaman performing a fake ceremony and making a fortune by deceiving Baebaengyi's parents who seek to appease Baebaengyi's spirit.

공연순서 PROGRAM

- 01 느리개타령, 호무가 Neurigae taryeong, Homuga
- 02 산염불, 자진염불 Sanyeombul, Jajinyeombul
- 03 신고산타령, 궁초댕기 Singosan taryeong, Gungchodaenggi
- 04 잣은배따라기 Jajeunbaeddaragi
- 05 배뱅이굿 Baebaenyigut
- 06 투전풀이 Tujeonpuri
- 07 긴난봉가, 잣은난봉가 Ginnanbongga, Jajeunnanbongga
- 08 배치기, 뱃노래, 잣은뱃노래 Baechigi, Baennorae, Jajeunbaennorae



대표 박준영(중요무형문화재 제29호 서도소리 전수교육조교)

연출 김혜연

출연 신영랑, 장연지, 류영미, 김유리, 이유진, 정다운, 김소영, 박래송, 전지현, 김채윤, 김미성, 조예리, 사랑, 박현비, 박정윤, 강나현

박덕상 타무천 예술단 '춤 한자락 장단 한가락'

'One Dance One Rhythm' by Park Deok-sang Tamucheon Art Company

2015. 04. 18. Saturday(토) 3:00pm

국립민속박물관 강당 Museum Auditorium



공연내용 Performance Description

이번 공연은 춤과 타악, 연극이 함께 어우러진 공연을 선보인다.

우리의 전통음악과 전통 무용을 기반으로 창작한 무용 및 타악으로 우리의 얼과 맛을 전파하고자 본 무대를 준비하였다.

첫 무대는 설장고 가락과 사물놀이를 엮어 흥과 멋이 살아있는 신명난 무대로 공연을 시작한다. 이어서 판을 정화시키는 살풀이춤, 구름 위를 노닐 듯 가벼운 발걸음의 소고춤, 신 내림을 받은 듯한 무당춤, 우리의 전통가락과 춤으로 이어지는 여성적인 장고춤과 남성적인 설장고춤으로 관객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하며, 마지막으로 열정적인 움직임과 북 가락으로 무장된 혼의 울림이 객석을 무아지경의 흥과 신명으로 인도한다.

This show comprises dances, percussion performances and plays, the purpose of which is to promote the spirit and beauty of Korea through dances and percussion performances created on the basis of Korean traditional music and dance.

The show kicks off with 'Samullori' played to the tune of 'Seoljango' that will boost excitement among the audience. It is followed by 'Salpurichum' that purifies the show, 'Sogochum' with light footsteps, an almost possessed dance 'Mudangchum', and a feminine style of dance called 'Janggochum' and masculine 'Seoljanggochum' with Korean traditional tunes. They all will please the ear of the audience. However, it is not until the very last part of the show that 'Echo of Soul' full of passionate movements and tunes of drums brings ultimate excitement to the audience.

공연순서 PROGRAM

- 01 장고와 사물놀이 Jango & Samullori
- 02 살풀이춤 Salpurichum
- 03 소고춤 Sogochum
- 04 무당춤 Mudangchum
- 05 장고춤 Janggochum
- 06 설장고춤 Seoljanggochum
- 07 혼의 울림 Echo of Soul



대표 박덕상(타무천예술단 대표)

사회 박연아

출연 김일지, 박유혜, 권미화, 배정웅, 이성수,
조재욱, 송광호, 박덕상

명창 김점순의 경기민요 “화란춘성”

Gyeonggi Folk Song "Hwaranchunseong" by Master Singer Kim Jeom-sun

2015. 04. 25. Saturday(토) 3:00pm

국립민속박물관 강당 Museum Auditorium



공연내용 Performance Description

이번 공연은 명창 김점순과 그의 제자들이 펼치는 경기민요 공연이다.

첫 무대는 경기12잡가 중 정월부터 3월까지 그 달의 정경, 행사의 회포를 늘어놓는 달거리를 선보인다. 이어서 양상블 필(飜)이 연주하는 구음시나위, 제주도만의 특색을 고스란히 지니고 있는 제주십경가, 이어도사나, 밝고 경쾌한 경기민요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금강산타령, 노랫가락과 장기타령 등 전국을 대표하는 민요와 음악을 한 무대에서 감상할 수 있는 특별한 무대이다. 경기명창 김점순의 “화란춘성”은 단순히 경기민요의 대표적인 곡들만을 엮어서 부르는 것이 아닌, 꽃피는 4월 따스한 봄날 서울, 경기, 남도, 제주를 여행하고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의 “소리여행”으로 관객들을 이끈다.

This show consists of Gyeonggi folk songs sung by Master Singer Kim Jeom-sun and her students. It kicks off with ‘Dalgeori’ among 12 Gyeonggi folk songs that describes landscapes and events in each month from January to March. It is followed by such folk songs representing each part of the nation as ‘Gueumsinawi’ played by Ensemble Feel, ‘Jeju sibgyeongga’ and ‘leodosana’ full of characteristics of Jeju, ‘Geumgangsantaryeong’, ‘Noraetgarak’ and ‘Janggi taryeong’ - bright and cheerful Gyeonggi folk songs. “Hwaranchunseong” sung by Master Singer Kim Jeom-sun is not only a collection of typical Gyeonggi folk songs but also will make you feel like you have been on a journey to Seoul, Gyeonggi, Namdo and Jeju in April.

공연순서 PROGRAM

- 01 달거리 Dalgeori
- 02 구음시나위 Gueumsinawi
- 03 제주십경가, 이어도사나 Jeju sibgyeongga, leodosana
- 04 금강산타령, 노랫가락 Geumgangsantaryeong, Noraetgarak
- 05 장기타령 Janggi taryeong
- 06 경기양산도, 노로타령, 상사도야 Gyeonggi yangsando, Noro taryeong, Sangsadoya
- 07 청춘가, 태평가, 창부타령 Cheongchungga, Taepyeongga, Changbu taryeong
- 08 뱃노래, 자진뱃노래 Baennorae, Jajinbaennorae



대표 김점순(중요무형문화재 제57호 경기민요 이수자)

반주 양상블 필(飜)

출연 김점순, 최정애, 임길화, 허영현, 박선옥, 박은분, 고명자, 박경희, 정은영, 호나영, 고성녀, 고만순, 이순자, 차애자, 길혜영, 김서안, 이은숙, 이금환, 이은숙, 김복순, 심중순, 장인자, 이기현

느낌 좋~은 타악콘서트 'Feel 굿'

'Feel Good', a percussion concert

2015. 04. 05. Sunday(일) 2:00pm

국립민속박물관 앞마당 Museum Courtyard



공연내용 Performance Description

가족콘서트 'Feel 굿'은 전통의 정형화된 틀을 깬 새로운 작품으로, 전통 가락에 새로운 가락을 더해 창작하였다. 국악의 대중화와 다양한 장르 활성화를 위해 가, 무, 악에 중심을 두어 전통적인 멋과 흥을 느낄 수 있는 무대를 선보인다.

첫 무대는 판과 판소리를 합쳐 여는 무대 형식의 작품으로 소리꾼 특유의 입담과 타악의 신명이 어우러진 흥겨운 무대이다. 이어서 한국의 흥과 멋을 춤사위로 표현하는 한국무용, 전통타악연구소가 구성한 특유의 가락과 짜임새 있는 파워풀한 리듬의 장고, 아리랑을 장구 반주에 접목하여 풍성하고 알차게 꾸며진 어울락이 이어지고 크고 작은 북을 활용한 타악 퍼포먼스 타타타 공연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대미를 장식할 것이다.

A family concert 'Feel Good' breaks the mold of tradition by adding a new melody to the traditional ones. It presents a variety of performances full of traditional beauty and excitement, focusing on song, dance and music in a bid to popularize Gukak (traditional Korean music) and diversify genres.

The first performance is a combination of 'pan' and 'pansori', seasoned by singer's witty words and rhythmical percussion sounds. It is followed by a Korean dance that expresses Korean excitement and beauty, 'janggo' with unique tunes and powerful rhythms created by the Institute of Traditional Percussion, and 'Eoullak' that plays 'arirang' to the tune of janggu. Tatata, a percussion performance using drums of different sizes, will close the show and be definitely enjoyed by everyone.

공연순서 PROGRAM

- 01 판&소리 Pan & Sori
- 02 한국무용 Korean Dance
- 03 장고 Janggo
- 04 어울락 Eoullak
- 05 타타타 Tatata



대표 방승환(전통타악연구소 대표)

기획 박현승

출연 김정희, 박윤이, 신지용, 신인규, 최성우,
박병용, 김주현, 박병용, 최은규

고성오광대 전과장

Entire Gwajang of Goseong Ogwangdae

2015. 04. 12. Sunday(일) 2:00pm

국립민속박물관 앞마당 Museum Courtyard



공연내용 Performance Description

이번 공연은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중요무형문화재 제7호 고성오광대 공연이다.

고성오광대는 경남 고성지방에서 전해 내려오는 마당극으로, 탈을 쓰고 춤을 추며 재담을 통해 서민생활의 애환과 민중의 삶의 모습을 보여준다. 고성오광대는 현존하는 영남지역 탈춤 중 가장 그 원형에 가깝게 전승되고 있는 대표적인 탈춤으로 극보다는 춤이 월등히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공연은 5과장으로 구성된 문동북춤, 오광대놀이, 비비과장, 승무, 제밀주과장 순으로 진행되며 제밀주과장에 이어 공연되는 상여과장 또한 볼거리이다.

본 무대에서 펼쳐질 다양한 춤사위의 감동과 더불어 신명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This show presents 'Goseong Ogwangdae' which is designated as Important Intangible Cultural Property No. 7 and also loved by a number of people.

Goseong Ogwandae is 'Madanggeuk' originating from Goseong, Gyeongnam, where those with masks on express the life and sorrow of ordinary people by making jokes. Goseong Ogwandae, among the mask dances existing in Yeongnam region, is recognized as having been passed down in the form closest to its original state and its dance stands out more than its play. The show consists of 5 gwajangs that take place in the order of Mundungbukchum, Ogwangdaenori, Bibigwajang, Seungmu, and Jemiljugwajang. Sangyeogwajang following Jemiljugwajang is also something you should never miss out on. You will for sure enjoy the show and be impressed with a dazzling display of dancing skills.

공연순서 PROGRAM

- 01 1과장 문동북춤 Gwajang 1 Mundungbukchum
- 02 2과장 오광대놀이 Gwajang 2 Ogwangdaenori
- 03 3과장 비비놀이 Gwajang 3 Bibinoreum
- 04 4과장 승무과장 Gwajang 4 Seungmugwajang
- 05 5과장 제밀주과장 Gwajang 5 Jemiljugwajang



대표 장미이(봉천놀이마당 대표)

연출 전결화

출연 김선우, 김아남, 김지원, 김희선, 이윤일, 오은하, 이상우, 신희준, 백지영, 윤인지, 임공진, 하승규, 최재선, 강문철, 이동열, 장미이, 전태현, 정성래, 조미경, 조상형, 최진희, 이미정, 김민선, 김민주, 김문숙, 김미경, 김성담, 김성환, 김성현, 김돈구, 김희진, 박진기, 박한숙, 박상미, 박찬민, 서승욱, 정태권, 안갑술, 염상연, 우말숙, 유경자, 이은옥, 이재자, 이태영, 임경자, 정태숙, 정상순, 이상순, 임윤희, 최명순

신명의 땅 광개토(廣開土)

Gwanggaeto, The Land of Mirth

2015. 04. 19. Sunday(일) 2:00pm

국립민속박물관 앞마당 Museum Courtyard



공연내용 Performance Description

이번 공연은 전통연희 중 현대적 감성에 맞는 우수한 작품들을 모아 젊은이들의 에너지를 표현할 수 있는 신명나는 공연을 준비하였다.

전통연희와 판소리 그리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한국의 사물놀이 무대로 많은 공연활동의 경험을 토대로 전통과 현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포괄적인 공연을 선사함으로써 관람하는 모든 이에게 큰 호응을 얻을 것이다.

전통문화의 다양한 공연예술 형태 위에 우리 음악의 멋과 흥을 가미하여 신명으로 이끌어내는 이번 무대는 박물관을 찾는 국내외 관람객들에게 한국의 문화와 자긍심을 느끼게 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This show presents fascinating performances that also meet modern sensibility through which young souls express their energy and enthusiasm.

It is such a total package of traditional plays combined with pansori and world famous Korean Samullori, which will definitely appeal to everyone.

Watching the show with the beauty and excitement of Korean music added to various types of traditional art performances, those visiting the museum from home and abroad will be proud of Korean culture.

공연순서 PROGRAM

- 01 축원 혼의 소리 Prayer 'Echo of Soul'
- 02 우도 설장고 대합주 Udo Seojanggo Daehabju (Ensemble)
- 03 사물놀이 운우풍뢰 Samullori Unupungloe
- 04 판소리 신사랑가 Pansori Sinsarangga
- 05 사자놀음 풍물판굿 Sajaneureum Pungmulpangut



대표 권준성(광개토사물놀이 대표)

출연 박지웅, 장지성, 최동환, 김지수, 권준혁, 이창훈, 조용성, 조용배, 신민상, 김복희, 김유나, 최련, 이찬

함께하는 일과 놀이 - 화성두레농악

Hwaseong Dure Nongak - work combined with play

2015. 04. 26. Sunday(일) 2:00pm

국립민속박물관 앞마당 Museum Courtyard



공연내용 Performance Description

화성지역에서 농업생산을 위한 공동노동조직이었던 두레를 기반으로 한 풍물굿, 소리굿 등을 발
굴, 복원하여 공연형태로 재구성한 화성두레판굿이다.

화성지역은 예로부터 풍물굿을 두레라는 명칭으로 불렀으며 이 두레굿은 풍물뿐만 아니라, 지
경다지기(집터를 닦을 때 무거운 돌로 땅을 내리치는 행위)나 모내기, 김매기 등의 공동노동 시
의 노동요 등이 포함한다.

넓은 의미의 화성 두레굿은 세시풍속의 흐름에 따라 집터를 다지는 '지경다지기'로 시작하여 판
굿을 진행하고 뒷놀음으로 소고놀이, 버나놀이, 열두발 상모놀이 등의 다양한 개인놀이도 함께
하는데, 특히 다 같이 참여하는 대동굿을 통해 모두가 하나가 되어 어우러지는 '두레'의 참의미
를 느껴보는 시간이 될 것이다.

This show presents Hwaseong Dure Pangut restructured from Pungmulgut, Sorigut, etc.
whose origin is in Dure, a joint labor community organized in Hwaseong for agricultural
production.

Pungmulgut has been called Dure in Hwaseong and this Duregut includes not only Pung-
mul but also work songs sung during Jigyeongdajigi (to smash the ground with a heavy
stone to level it for a house), Monaegi (rice planting), Gimmaegi (weeding), etc.

Hwaseong Duregut in a broader context starts with 'Jigyeongdajigi' for levelling the
ground for a house and 'Pangut'. And that will be followed by such individual fun activities
as Sogonori, Beonanori, Yeoldubal Sangmonori, etc.

Daedonggut in particular brings everyone together by encouraging all their participation
while providing an opportunity to revive the true meaning of 'Dure'.

공연순서 PROGRAM

- 01 고사굿 Gosagut
- 02 지경다지는 소리 Jigyeongdajineun sori
- 03 화성두레농악 판굿(1) Hwaseong Dure Nongak Pangut(1)
- 04 모내기, 논매기 재현 Monaegi (rice planting), Reenactment of rice field weeding
- 05 화성두레농악 판굿(2) Hwaseong Dure Nongak Pangut(2)
- 06 개인놀이 Gaeinnori (individual fun activity)
- 07 대동굿 Daedonggut



대표 안병선 (사단법인 경기전통화성두레보존회 회장)

연출 황삼열

출연 안병선, 황삼열, 심명숙, 강으뜸, 김성자, 이경희, 신현경, 김주희,
최혜자, 한상은, 김한결나, 황지현, 황지원, 김유영, 최관용, 권강현,
심민우, 강영호, 홍희정, 홍영주, 황희민, 홍태우 등

